

## ■ 2017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지원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 회의일시 : [1차] 2017. 5.31(수), [2차] 2차 2017. 6.22(목), [3차] 2017. 7.31(월) ~ 2017. 8. 1(화)
- 회의장소 : [1차, 2차]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3차] 서면 심의

3년차에 접어드는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은 올해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중장기적 비전과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3차에 걸친 내용보완과 협력구조를 만들었다. 재지원 선정단체 5곳 중 정선과 익산, 남해의 경우 1차 심의에서 조건부 선정을 전제로 하여 2차 심의를 통해 보완 서류 검토 후 정선과 익산은 선정을 확정했다. 올해 새로 진입한 김포문화재단은 현장 실사 후 2차 심의를 통해 선정을 확정했다. 남해는 현장실사와 지역네트워크 간담회 형식의 심사를 통해 3차 심의 후 선정을 확정했다. 3차에 걸친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총 6곳의 작은 미술관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 심의 시 제안된 컨설팅을 통한 보완 및 제안사항

**김포 문화 재단** - 공간 조성 시 내.외부를 적절하게 리모델링 함으로서 공간 적 특징을 살릴 것 (리모델링 시 가변형 구조를 적용할 것)

향후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반영할 것. 방공호 외에 빈 공간과 21개의 지역내 방공호를 연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구상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레지던시 및 21개의 작은 문화 공간)

**익산 문화 재단** - 지역과 연계 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책임 있는 기획자의 기획과 작가, 주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평상시에도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지역 젊은 작가들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볼 것.

**정선 아트라인 협동조합** - 지역과 연계 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책임 있는 기획자의 기획과 작가 주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평상시에도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지역 작가와 주민작가들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볼 것.

### 남해 바래길 작은 미술관 -

1.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의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

2-1. 대안공간 마루는 외부 작가들 섭외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2-2. 지역작가들은 전시와 지역민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미술관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 2-3. 지역 기획자 그룹은 지역 네트워크와 미술관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지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를 한다.
3.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모색해보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
4. 올해 안에 작은미술관의 정체성과 브랜딩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5. 지역에서 활동하는 25인으로 미협을 구성한 지역작가들, 귀촌해서 활동하는 숨어 있는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  
기존 사립미술관인 남해바람흔적미술관과도 연계 필요(네트워크 지속)
6. 지역주민이 포함된 운영위원회 구성

\* 선정 확정

익산문화재단, 정선 아트라인협동조합, 인천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남해 대안공간 마루 (이상 재지원단체), 김포문화재단 (신규지원 단체)

\* 올해 작은 미술관 지원과 운영과 관련 해서는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담 컨설팅제를 도입하기로 함.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  
(김영현, 박이창식, 신호섭, 이윤숙, 홍보라)